

문화산책

박기복

영화감독



광주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과 광주문화기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보도를 접했다. 그 자리에 현장 문화예술 일꾼들이 빠진 게 아쉽다. 현장의 제작시스템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이다. 초 단위로 변하는 문화예술 현장은 타상공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담당 실무자라도 현장 스태프로 참여를 권하고 싶은 필자의 생각이 혼자만의 고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라는 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초·중·고 학교 예술 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반영이 물 건너간 소식을 듣는다. 2023년 574억7200만원에서 2025년 80억 8700만원으로 86% 삭감됐다. 2026년도 예산은 135억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술인의 미래가 불안하고 불길하다.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을 통합한 개념으로,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문화와 예술은 서로 영향을 주며,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1화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문화예산으로 수백 명의 개인과 단체의 치열한 공모전 경쟁을 통해 겨지 이불 찢어 나뉘 갖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작품을 만들어왔다. 이제 예술인에게 남은

문화예술 공모 조건과 심사위원, 광주의 미래

일은 내년 선거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각을 지닌 시장과 구청장을 선택하는 일이 유일한 실 날 같은 희망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나 광주시를 바라보며 입만 벌릴 수는 없다. 적은 예산에 맞는 ‘작지만 강한 콘텐츠즈’ 개발이 유일한 미래와 희망이 되어 버린 고단한 길을 쉬지 않고 걷는다.

그런데 많은 예술인이 공모전 준비에 앞서 회의부터 든다. 작품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응모 요강과 심사위원에 대한 불신과 의혹 때문이다. 주체 측의 어떤 버리나 외압이 개입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탈락한 자의 불만이나 자의적인 해석 또한 아니다. 참고로 필자는 몇 차례 공모전에 선정된 운 좋은 수혜자 임을 밝히며 지금도 영화를 연출하고 있다. 필자가 공모전 응모 조건과 심사위원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심사의 대상이 되어 겪은 경험과 문제점을 적시하고 싶어서다. 필자와 같은 수많은 광주 예술인의 피와 눈물과 지독한 인내심을 너무 잘 알기에 ‘경쟁의 공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예술 창작자의 열정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다.

공모전 심사와 선정은 단독에 선 예술인의 혼을 죽이고 살라는 재판관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그 만큼의 전문적인 경험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화수도 광주가 지닌 엄청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과 콘텐츠가 없다”는 간담회 의제를 인정한다면 모순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응모자격 요건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가로 국한 시켜야 한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회사가 공모전 과실을 따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콘텐츠를 보는 안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 또한 광주에 거주하면서 현장 제작 경험이 필수적이며 광주의 역사, 인물,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 위주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역량에 가려져서도 안 된다. 신춘문에 예를 보더라도 심사위원 공개와 심사평이 오픈된다. 문화예술에 공모전에 응모했다가 낙선한 예술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자격과 명단과 설득력 있는 심사평만이 예술인의 불만과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 당연히 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한다면 의심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뻔뻔한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의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그동안 필자가 눈여겨본 프로그램과 광주의 몇몇 인사들의 문화예술행사를 바라보는 인식에 광주의 미래와 희망을 절어본다.

광주 북구청 (문인 구청장)의 ‘주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예술 실현’은 형식적 문화예술이 아닌 실질적인 구민의 삶과 함께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는데 공감이 갔다.

노회용 (전 동구청장)은 ‘충장로, 광주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라는 일성과 더불어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창의상권’으로 전환으로의 대안은 그저 걸차레로 들리지 않는다. 광주 시민을 중심으로 둔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은 광주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이다. 다음 문화예술을 디자인할 지도자의 선택은 오롯이 시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다.

기고

김규형

아트광주 사무국장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광주문화재단 주관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렸다. 11개국 94개 갤러리가 105개 부스에서 약 4400점의 작품을 선보였고, 2만 8000여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개막 첫날부터 ‘오 픈런’ 현상이 이어지며 광주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아트광주는 ‘아시아 중심 아트페어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명칭에서 숫자를 뺐 ‘광주국제아트페어(이하 아트광주)’로 리브랜딩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장기적 방향성과 국제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였다. 아트광주는 지역에서 출발해 세계로 나아가는 ‘로컬에서 글로벌로’의 비전을 구체화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가장 주력한 부분은 관람객 확대였다. 온라인 예매 채널을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려, 이용자가 많은 ‘놀티켓’과 문화예술 애호가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99티켓(별위한문화예술)’을 함께 운영하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성료에 부쳐

—지역의 힘으로 세계로, 예술시장의 선순환을 향하여

높였다. 그 결과 사전 예매자와 유료 입장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과 20~30대 젊은 세대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미술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지역 아트페어 중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꾸준히 유치한 사례는 드물다. 이는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일관된 기획과 운영을 통해 일관된 성과로 할 수 있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의 기반도 강화되었다. ‘거장의 숨결’, ‘프로포즈’, ‘라이징스타’전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의 뿌리와 동시대 미술시장, 지역 미술의 미래를 아울러 제시했다. 또한 로비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은 후원단체의 브랜드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상생형 플랫폼’으로, 회화 중심 전시를 디지털 매체로 확장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갤러리 참여가 전년 32곳에서 45곳으로 20% 증가하며, 지역 미술계의 회복력과 자생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독일·몽골·스페인·미국 등 해외의 도시에서 열린 연계 전시가 판매와 후속 계약으로 이어지며, 지역 미술이 세계 무대와 직접 호흡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저변 확대와 관람층의 확장은 국내 미술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새로운 소비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고가와 중저가 작품 간 소비 양극화가 여전히 뚜렷하지만, 첫 구매 중심의 젊은 관람객이 늘어난 것은 시장 저변 확대의 긍정적 신호다. 이러한 변화는 단발적 성과라기보다, 코로나 이후 꾸준히 기반을 다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시적인 흥행보다 장기적 성장을 위한 ‘광주형 아트페어 모델’의 정립이 중요하다. 전국이 하루 생활권으로 연결된 환경에서 단순히 다른 대형 아트페어를 벤치마킹 하기보다, 지역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 발전을 통해 향후 국내외 대형 갤러리의 가 찾아오는 아트페어로 참여와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한 해의 결과를 넘어 광주 미술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변곡점이다. 아트광주는 광주문화재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지역 미술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기적 지표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 방향성과 일관된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 미술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예술의 힘으로 시대의 정신을 품은 도시, 광주. 아트광주는 그 전통 위에 새로운 비전을 더하며,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여정을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갈 것이다.

기고

조정아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장학사



대한민국에는 매해 아주 특별한 날이 있다.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공중을 비행하는 날, 도로의 차량은 정적을 자제하고, 도시의 시끄러운 공사가 잠시 쉬어가는 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의 마음을 모아 인생의 한 관문을 지나려는 이들을 응원하는 날.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올해는 55만4174명의 수험생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시험에 응시한다. 광주에서는 1만7731명이 꿈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다. 광주 26지구 수능 담당자로서 수능시험 시행을 준비하며, 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크게 감동 받는다. 교육청은 수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수험생들의 결실을 함께 준비한다. 시험장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인다.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은 각각 저마다의 분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당일의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마음을 모은다. 날을 지새우며 수능을 준비하는 수많은 이들의 팔과 마음이 또 한 해의 수능을 이룬다. 올해 광주에서 수능에 투입되는 관리요원과 감독관은 3349

정답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꿈과 마음

명이다. 가장 고된 업무를 흔쾌히 맡아 뜻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수능시험날인 13일에는 8시 10분 전에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장에 갈 때는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물 등 꼭 챙겨가야 한다. 혹시 수험표나 신분증을 빠뜨렸다면, 시험장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해결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시험오류 미숙지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전자기기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절대 가져가지 말고 혹시 가져가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째,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셋째, 4교시 선택과목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한 과목만 올려두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절대 2개의 시험지가 동시에 책상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넷째, 감독관의 지시에 잘 따르고, 부정행위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시험장 관리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수능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전체에 은은한 긴장감이 감돈다. 어느 집이건 한 집 건너에는 늘 수험생이 있는 만큼 수능은 우리 전부의 행사이자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수험생 한 사람의 힘으로 넘는 관문이 아닌, 가족, 친

구, 선생님, 시민, 공동체 모두의 힘을 합쳐 넘어가는 삶이 한 관문이 바로 수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하나의 정답을 더 맞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응원하는 누군가의 마음,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울고, 웃으며, 함께 한숨짓고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마음과 눈물을 떠올려보라. 여러분이 수능 하루를 위해 걸어왔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떠올려보라.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조용한 꿈과 희망, 삶의 궤적을 바퀴보려는 염원과 소망을 가슴 깊이 간직하라. 정답보다도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꿈과 마음이기 때문이다.

수능은 종착지가 아닌 하나의 관문이다. 관문을 목적으로 해서 걸어가는 이는 없을 것이다. 관문은 그 너머를 향해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앞에서 잠시 떨리거나 지칠지는 몰라도 결국 그 문을 열어젖히고 너머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수능을 보기보다 수능을 넘어 열려 있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넘어보라.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길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각자의 노력과 꿈의 색채로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정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마지막 답안의 마침표를 던지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 단장을 시작하길 바란다.

사설

‘국가 NPU전용 컴퓨팅센터’ 반드시 광주로

광주시가 ‘국가 NPU(AI반도체) 전용 컴퓨팅센터’의 광주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AX 시티와 6G, 한국형 미래도시 포럼’ 기조 연설에서 ‘AI 실증도시 광주’ 전략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여기서 NPU는 ‘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의 약자로, AI 기능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AI 연산 전문 칩을 말한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고성능 연산에 효과적이라고 하면 NPU는 GPU로 개발한 AI 서비스에 적합하다. 즉 AI·답러닝 연산을 가속하는 전용 프로세서라는 얘기다.

GPU 보다 낮은 전력에서 고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돼 클라우드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를 실행해 오프라인 사용, 빠른 응답,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기술인 ‘온디바이스 생성 AI’ 경험을 가속화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의 이같은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광주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사실상 무산된 ‘국가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전남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산 AI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왔던 광주시가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유치해 국산 AI반도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광주는 에이직랜드·에임퓨처·퓨리오사AI·리벨리온 등 25개 AI반도체 팹리스기업(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위탁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23년과 2024년까지 1단계로 200억원 규모 NPU 실증 및 검증 사업을 통해 퓨리오사AI·리벨리온·사파온이 국산NPU를 출시했다. 현재까지 정부 R&D를 지원받아 국산 NPU를 출시한 기업은 10개사라고 한다. 또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단계로 400억원 규모의 고도화·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광주에 국가AI연구소 설립,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메가 샌드박스형 국가 AI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AI 실증도시 광주’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같은 제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 성공만이 살길이다

전남도 전 지역에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구)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를 의결한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만드는 소규모 발전소가 여러 군데 퍼져 있어 필요한 곳 가까이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 등을 포함한 설비용량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해당하는 데 주택 옥상이나 빌딩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이 좋은 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망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공급하는 기존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고 전기요금도 또한 한국전력과 달리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 경우 지역 생산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 유치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태양광 보급률 전국 최고인 전남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접속을 일부 허용하되, 계통 안정성을 위해 발전소가 출력을 제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계통포화 문제로 출력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이번 특구 선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태양광 발전이 밀집한 해남·영암지역에 유치 예정인 데이터센터에 지역내 생산된 에너지 연계가 가능해졌고 인공지능(AI) 기반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기술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구 선정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국내의 첨단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 해남 구정지구에 첨단산업·에너지·교육·주거 인프라가 집약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하고 영암 산호·삼포지구에 ‘해상풍력 기저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분산에너지 특구 성공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